

불교 꽃꽂이 35년 맛은 자연 스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꽂이展' 열려
 범선사 불일미술관 5월 1일~2일

花心이 곧 佛心

"꽃과 마주대하고 있으면 항상 부처님 품안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에 피어있는 꽃들은 저에게 부처님과 같은 존재죠"

꽃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35년 동안 전하며 세상을 화엄 법계로 만들어가는 스님이 있다. 누구하나 알아주는 곳 없던 척박한 환경의 불교 꽃꽂이계를 묵묵히 지켜나가며 문화포교에 헌신해온 한국불교꽃꽂이의 원조(?) 자연 스님(보림꽃 예술중앙회장·기원사 한주·사친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자연 스님은 5월 1~2일 양일간 범선사 불일미술관에서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꽂이전'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연

35년간 동양적 꽃꽂이 알리기 앞장 오방색에 은은한 자연의 미 연출 특징 "전통과 현대 접목한 작품 연구 할 것"

다. 보림꽃예술중앙회 창립 20주년과 기원사 창건 30주년 및 불교꽃꽂이 입문 3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지난 4월말 출간된 책 <한국 꽃 예술과 불교>에 등장한 작품 70여점을 선별해 선보입니다. 출판사 측에서 국내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꽃꽂이를 비교한 책들이 거의 없던데 동양 꽃꽂이의 기초 작품부터 응용, 창작에 이르기까지 1백여 작품을 만들고 설명해 놓았습니니다. 이번 책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보림꽃 예술중앙회 연구원의 교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연 스님이 불교꽃꽂이를 하며 고집스러운 정도로 고수해 온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동양적인 꽃꽂이만 한다는 것이다. 전통사찰이 많은 우리나라 불교계 실정으로는 크고 화려한 서양식 꽃꽂이는 전혀 안 어울린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도심 포교당에는 서양 꽃꽂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국사찰에는 정적인 동양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역시 동양식 꽃꽂이가 잘 어울리지요."

동양 꽃꽂이는 기초 방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간결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고 스님은 말한다. 또한 꽃도 오방색 이상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선과 여백의 미를 강조한다. 자연 스님이 꽃꽂이를 할 때 꽃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다. 오히려 꽃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은은하며 아름다운 꽃 본래의 미를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고 자연 스님은 설명한다.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로 한 분야를 일으켜 세우는 데엔 꼭 구비돼야 할 것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며 두 번째는 대내외적 평가를 듣는 기회인 발표(전시),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물인 출판물 출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연 스님은 10년간 봉영사 승가대학에서 강의해 왔으며, 보림꽃예술중앙회 연구원 강의로 30년 동안 한번도 거른 적이 없다. 또한 네 권의 출판 작업을 통해 불교꽃꽂이를 단순한 불교의례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좀 더 격조 있는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전시회도 연합회 차원에서는 20여회 이상 했지만 정작 스님의 개인 전시회는 이번이 고작 네 번째다.

이렇게 평생을 꽃과 함께 살며 꽃을 다듬고 정성껏 꽃을 마음, 즉 화심이 곧 불심이라는 신념으로 불교 꽃꽂이를 개척해온 자연 스님의 노력은 의식 꽃꽂이의 전형으로 불교 꽃꽂이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참 뜻을 담은 불교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꽃꽂이를 재창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ews.com

불교적 주제 서양악기로 들으면 어떨까?

니르바나 봉축 연주회/11일 KBS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5월 11일 오후 7시30분 여의도 KBS홀에서 봉축기념 연주회를 개최한다. (사날마다 좋은날(이사장 김의정·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동 주최하는 이 연주회는 '나눔으로 실현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현재 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장문학씨가 지휘봉을 잡는다. 음악회는 계절감각에 맞게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등으로 문을 연다. 이어 하이든의 트럼펫 콘체르토와 쇼스타코비치 재즈모음곡 No 2 제4곡 '왈츠' 등 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경쾌한 곡들이 연주된다.

이번 연주회의 하이라이트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지휘자인 작곡가 지연석씨의 클래식 창작곡 '시다르타를 위한 오케스트라 모음곡' 연주다. 이 곡은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기존곡들과는 달리 부처의 탄생 이전인 도술전에 서부터 일대대 탄생하시는 과정을 조명했다. 이 곡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부처-도술전에서 기다리며' '여섯 개

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마야비)의 태에 들다' '무우수 나무아래서(뜨디어 세상에 태어나다)'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번 곡은 불교적인 주제를 서양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등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이번 음악회에서는 최성환 편곡 '아리랑', 방수미의 판소리 '낙성가', 단소 연주자 이용규의 '단소와 관현악을 위한 모음곡' 등이 연주된다. (02)718-4599. 김주일 기자

제22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제22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의 일정이 공고됐다. 회화, 공예, 조각 등의 부문에서 작품을 선정하는 이번 불미전은 8월 21일까지 접수 받으며, 대상에게는 상패와 상금 1500만원이 수여된다.

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및 전국 교구본사에서 배부한다. 수상자 발표는 8월 26일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시상식은 10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다. www.buddhism.or.kr 김주일 기자

詩書로 떠나는 임자기행 ⑪




그림: 이상배 화백

지리산 구층암
 장인성 시인

하늘과 케일류가 함께 지내는 지리산 천왕봉이 세 몸뚱이 가운데 사리구니쯤 되는 텅텅한 자리를 석식삼년 하 루갈이 다듬고 무질러 움지막한 절간 하나 세워놓고 이 르기를 물고 뜯고 이리저리 훑는 인간들을 꽃처럼 보살 피라 하시며 회엄(悔嚴)이란 이름을 새겨놓고는 절간의 남자(納子)부터 제도하라고 화엄사가 뻗히 내리 보이는 뒷마당 언덕배기 높직한 곳에 평평한 죽비 하나 꽃아둔 것이 지리산 화엄사 구층암이라네요.

구층암(九層庵)-화엄사 부속암자로 큰 절 뒤면에 있다.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⑧

불교음악 대중화·대형화 시기

1990년대 초

1990년대 불교음악의 특징은 음악의 대중화, 공연의 대형화, 조직의 체계화가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91년 불교방송 개국으로 불교음악이 방송을 통해 불자들에게 불교음악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신자 찬불가 100곡을 만드는 등 창작 작업에도 참여해 질적 향상을 꾀하기도 했다. 신자 찬불가 중 '우리도 부처님 같이' '오호라 꽃이여' '일천강에 비치는 달' 등이 이때 나온 곡들로 지금도 불자들이 많이 불리고 있는 애창곡들이다. 불교음악동인회 930여곡 찬불가 출판

이후 92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를 통해 '붓다의 노래' (정부기 작곡, 김효경 작사), 93년 '붓다의 노래' 영광공연, 94년 '94불교음악의 대항연' (작곡:김동환 정부기 박이재 김희경)은 96년 까지 매년 개최됐다. 97년부터는 한국불교음악협회와 삼보불교음악협회로 협회명칭을 변경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활동해 오고 있다. 92년 제2회 음악제는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갑자기 공연장 불이 꺼져 시설 관리자에게 이유를 묻자 '밖에 공연을 보러 4천여 명이 몰려왔는데 수용 인원이 1천 3백여 명 밖에 안 되니 빨리 수습하지 않

92년 음악제때 관객 넘쳐 대관 금지도

활성화가 서서히 돌아오자 변규백, 이길상 선생은 찬불가를 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하자고 뜻을 모으고 창작에 몰두했다. 하지만 이길상 선생의 타계로 작업이 중지된 것을 큰 아쉬움이었다.

제3세대 불교음악동인회는 91년 정부기 교수, 이견호, 이태호, 반영규 씨와 필자가 참석해 설립했다. 불교음악동인회는 불교음악의 연구와 창작, 공연, 불교음악출판 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동인회는 '3세대 불교명상음악 작곡발표회'와 연주곡집을 발간하면서 91년 4월 20일 호암아트홀에서 연주회를 개최했다.

연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은연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밖에 나와 보니 엄청난 인원이 몰려와 있었다. 그래서 1부, 2부를 나눠 관객을 바꿔 가며 연주회를 하기도 했다.

제3세대 불교음악동인회는 불교음악을 한 자리에 총 집합한 <찬불가 전집>을 93년 8월 1일 930여곡을 수록해 출간했다.

불교교역연구원(원장 황학현)은 93년 8월 '대한불교 소년, 소녀합창단 창단'(단장 남강수)을 50명의 단원으로 구성해 건전한 불교음악을 통한 청소년 포교와 찬불가 부르기 운동 등을 펼쳤다.



두 번째 음성공양
 'L.M.B. 싱어즈' 찬불가 출시

찬불가 포교 중앙단인 'L.M.B. 싱어즈'(사진)가 봉축을 앞두고 지난 4월말 두 번째 음반을 냈다. 이번 앨범에는 '거룩하신 교도소 법원 고아원 등 주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오페라 교성곡 민요 가곡 가요 등의 다양한 페퍼토리로 음성포교에 앞장서 왔다.

김주일 기자

와 나옴스님의 유명한 시 '창산은 나를 보고' 등은 일반인들에게도 가사말이 친근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음악을 사랑하고 빛이 되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1999년 창단된 'L.M.B. 싱어즈'는 창단 취지에 걸맞게 8년동안 군법당 교도소 법원 고아원 등 주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오페라 교성곡 민요 가곡 가요 등의 다양한 페퍼토리로 음성포교에 앞장서 왔다.

해병대 포교 기금마련 설봉스님 도예전

백자앞에서

이 거친 손으로 내 어이 너를 빚었으랴!
 이 어두운 영혼으로 내 어이 너를 구웠으랴!
 어둑한 가마속에서 처음 너를 본 순간
 내 심장의 박동은 멎었지만
 너의 싱싱한 숨소리가
 가마속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굳은듯 떨리는 두 손이
 감히 너를 만져 보지도 못하고
 넋을 풀어 놓고 주저 앉아 있을 때
 너는 한 점 더러움 모르는
 하얀 가슴으로 나를 안고
 혼탁한 세상 짐처럼 밀치며
 가마 밖으로 나왔다.
 밤새 심술부리던 바람도 고개 숙였고,
 아침 햇살도 놀라 너의 넉넉한 어깨위에서
 토닥토닥 뛰었다.
 시리도록 하이얀 너의 신비로움에 밀려
 하늘도 자꾸만 멀어지기만 하던 날
 너는 내가 한점의 티끌임을 알게 해준
 스승일레라

설봉 합장

'07년 5월 9일 13~15시까지

다보성 갤러리 종로 경운동 수운회관 3층 전시실 TEL 02)730_7566

초대합니다

숨막힐 듯이 정적이 감도는 칠책선 나라를 지키는 젊은 부처님들의 눈동자 빛나는 곳 여기가 바로 나의 법당입니다. 나는 이 젊은이들에게 불공을 드리려 오늘도 초코파이 자루와 커피통을 짊어지고 최 전방 초소를 찾아 갑니다. 그 젊은 부처님들 만들 생각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라고 다짐하며 젊고 푸르른 불교만을 그림 그리면서 이 한생이 다할 때까지 마른땅에 물젖어 들듯이 소리없이 그들만을 찾아가기 위하여 해병대 포교기금 마련 도예전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자리를 빛내 주시옵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삼보에 귀의 하오며

무애산인 설봉 합장